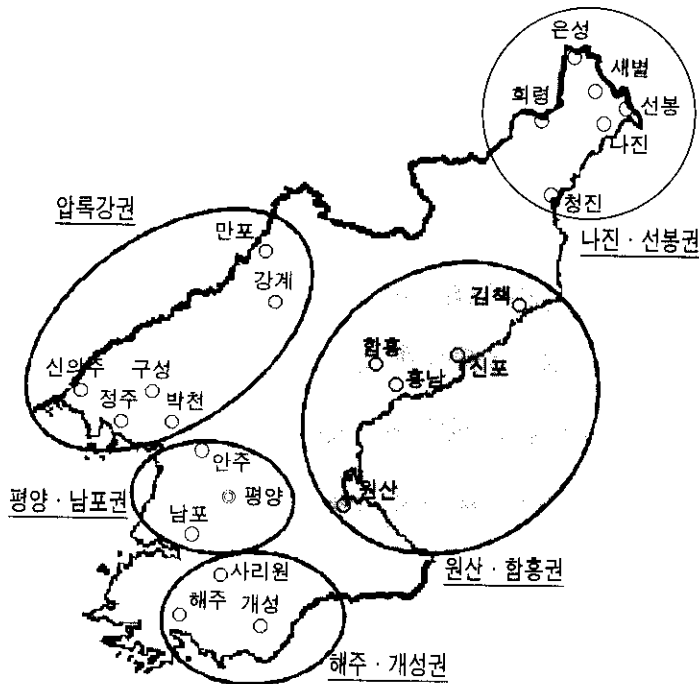


권역별 투자 환경(Ⅲ) - '원산·함흥권'

박송동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을 투자 환경에 따라 크게 5 개의 권역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즉, 신의주, 구성, 강계, 만포를 중심으로 하는 '압록강권', 청진, 나진, 선봉, 회령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나진·선봉권', 평양, 남포, 안주, 박천을 중심으로 하는 '평양·남포권', 원산, 함흥, 흥남, 김책을 중심으로 하는 '원산·함흥권', 해주, 개성, 사리원을 중심으로 하는 '해주·개성권' 이 바로 그것이다.

각 권역은 북한 당국의 지원 가능성, 대외 접촉 용이성, 기존 공업 지구와의 관련성, 기반 시설의 편의성 등에 따라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주로 산업 기반, 사회간접자본 기반, 대외 개방 수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각 권역에 적합한 투자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 산·함흥권은 원산시, 함흥시를 비롯하여 김책시, 신포시, 흥남시 등이 속해 있는 함경남도과 강원도 지역을 포괄한다. 이 지역은 동해를 접하면서 여러 강 지류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항만이 발달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비록 나진·선봉권에 비해 중국, 러시아 등과의 3국간 변경 무역이나 동북아 진출을 위한 물류 요충지로서의 기능은 크게 떨어지지만, 평양, 개성 등 내륙 지역과 인접해 있어 남북한 직교역이나 경협에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조사한 바 있는 나진·선봉권에 이어 함흥시, 김책시, 원산시 등을 중심으로 원산·함흥권의 주요 산업 기반과 경제·제도적 측면의 투자 환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역 개황

원산·함흥권은 북한의 9 개 주요 공업 지구 가운데 원산공업지구, 함흥공업지구, 김책공업지구 등 3 개 공업 지구를 포함하는 북한 내 주요한 공업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평야와 높지 않은 언덕 지대를 가지고 있다. 이 지역내 대표적인 도시로는 원산시, 함흥시, 김책시, 신포시 등이 있다.

원산시는 강원도의 북부 원산만 연안에 자리잡고 있는 도시로서 원래는 함경남도에 속해 있다가 1946년 9월에 강원도로 편입되면서

도 소재지로 된 도시이다. 서쪽으로는 마식령 산맥이 뻗어 있고, 바다와 잇닿는 동쪽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이러한 원산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대형 선박 기지인 조선소를 가지고 있으며, 동해안의 수산업 기지의 하나로서 수산물 가공업이 발달해 있다.

함흥시는 함경남도 소재지로서 함흥만 연안에 위치해 있다. 지난 1960년에 흥남시, 락원군, 함주군의 일부를 편입하여 직할시로 승격되었고, 1974년에는 함주군의 일부와 덕산군을 흡수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함흥시는 대부분이 평야와 높지 않은 구릉으로 형성된 북한의 주요 공업 도시의 하나로서, 주요 공업은 화학, 기계, 금속, 건재, 방직 공업 등이다. 특히, 화학 공업의 중심지로 종합 화학 공업 기지를 갖추고 있다.

김책시는 함경북도 동해안의 남부에 위치하면서 지난 1951년에 선진시에서 이름이 바뀐 도시로서, 1961년 12월에 학성군에서 이름이 바뀐 김책군을 흡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도시는 바다를 접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산지로 되어 있고, 철, 이회석, 대리석, 운모 등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 김책시는 흑색 금속 공업 중심지의 하나이며 기계 공업, 건재 공업, 채굴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해안의 주요 수산 기지의 하나이다.

그리고 신포시는 함경남도 동해안 중부에 있는 도시로서 1960년 10월에 북청군 신포면,

〈표 1〉 원산·함흥권 지역 개황

중심 도시		· 원산시, 함흥시, 김책시, 신포시
특화 산업		· 금속, 기계, 조선, 화학
임지 조건	자원	· 덕성, 이원의 철, 대홍의 중석, 허천, 광천의 은·아연 등
	전력	· 수력 발전소: 허천강, 장진강, 통천, 금강산 · 화력 발전소: 함흥, 홍남비료공장
	공업 용수	· 장진강, 허천강
	교통·항만	· (철도) 신흥본선(평양~나진), 함남선(여해진~대홍), 강원선(고원~평강) · (도로) 평양-원산 고속도로, 원산-금강산 고속도로 · (항만) 원산항, 신포항, 홍남항

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산업」, 무공 자료 95-23, 1996. 6. 30.

양화면, 속후면 등 주변 지역을 흡수하였고, 1974년 1월에는 신창군을 흡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포시는 북쪽으로는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남쪽으로 갈수록 지세가 완만해지고, 해안 지역은 좁고 긴 평야로 되어 있다. 이 신포시도 전통적인 수산업 도시로서 원양 어업의 중심지이고, 조선업과 수산물 가공업이 발달해 있다.

주요 산업 현황

원산·함흥권은 일제 때부터 발달되어온 함흥공업지구와 함께 원산 및 김책공업지구로 구성되어 비교적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함흥공업지구는 일제 때부터 발달되어온 화학공업지구로 유명하다. 이 지구에는 만덕관산, 운포광선의 석회석과 고원탄전의 무연탄을 바탕으로 많은 화학 공장이 있다. 과거 유안 비료의 생산만 할 수 있었던 화학 기술도 다양한 화학 비료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발달

되어 있다. 홍남비료공장의 경우 유안 비료, 과린산 석회 비료, 요소 비료 등이 생산되고 있다.

김책공업지구는 비교적 내륙과의 수송 수단이 발달해 있는 가운데, 마천령산맥의 지하 자원과 개마고원의 임산 자원이 풍부하고, 소재, 금속, 화학, 조선 등 각종 공업이 배치되어 있다.

원산공업지구는 공업 배치의 비중이나 규모 면에서 여타공업지구에 비해 다소 떨어져 있지만, 원산시를 중심으로 다수의 공장들이 배치되어 있다.

금속 공업

원산·함흥권 내의 주요 금속 공장은 철강 부문으로는 성진제강소, 비철 금속 공장으로는 단천제련소, 홍남제련소, 문평제련소, 9·21제련소 등이 있다.

성진제강소는 일제 때부터 특수강을 생산

〈표 2〉 원산·함흥권의 금속 공장 현황

공장명	소재	생산 품목	비고
성진제강소	김책시	· 생산 품목: 구조용 합금강, 고속도강, 슬라브 · 주요 설비: 평로 2기, 전기로 3기, 회전로 8기	· 생산 능력: 제강 40만 톤, 압연 41만 톤
홍남제련소	함흥	· 생산 품목: 전기동, 연, 귀금속(은), 니켈, 안티몬, 니트 등 · 주요 설비: 전기 야금 공장, 각종로 15기, 전해로 350기 등	· 생산 능력: 연 1만 톤, 전기동 4,000 톤, 니켈 2,000 톤
단천제련소	단천	· 생산 품목: 동, 아연 · 주요 설비: 소결로, 용광로, 반사로 전해조	
문평제련소	문천	· 생산 품목: 연, 아연, 입동, 전기동, 황산동	
9·21제련소	문천	· 생산 품목: 연, 아연	

자료: 한국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1996.

하였으며, 1956년까지 일산 5 톤급 전기로 10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이후 시설 확장에 주력하여 1969년까지 전기로 10기를 모두 10 톤급으로 개조 확장하고, 1969년에는 10 톤급 전기로 1기를 추가 증설하여 현재의 제1제강공장이 조성되었다. 그 이후에도 10 톤급 전기로 2기를 증설하여 제2제강공장이 완공(1971년)되었고, 30 톤급 전기로 3기를 증설하여 제3제강공장이 건설(1976년)되었다. 압연 부문에서는 1953~60년에 연산 20만 톤 규모의 조강 공장을 건설하였고, 1961~62년에 연산 10만 톤과 8만 톤의 중판 공장을 건설하였다. 이외에도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1977~83년 중에도 대대적인 설비 확장이 이루어졌고, 냉간 압연을 비롯한 철강 2차 제품의 생산 기반이 확대되어왔다.

홍남제련소는 동 및 아연 제련 시설을 보유하고 전기동, 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 제련소는 동해안 지방에서 산출되는 니켈광, 중석,

코발트, 티타늄 광 등을 이용하여 전기 니켈, 몰리브덴, 텅스텐선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 제련소는 80년대 이후 특별한 시설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에도 1981년 수준인 연 1만 톤, 전기동 4,000 톤, 니켈 2,000 톤의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문평제련소는 북한 동해안의 최대 비철 금속 생산 기지이다. 이 제련소는 소결로, 용광로, 반사로 전해조 등을 갖추고 검덕, 가은, 관산 등의 광산으로부터 광물을 공급받아 전기 연과 건기 아연을 생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산·함흥권에는 금속 공장으로서 단천제련소, 9·21제련소 등이 있다.

기계 공업

원산·함흥권에 소재하는 기계 공장으로는 함흥농기계공장, 용성기계연합기업소, 원산트랙터공장 등이 있다.

〈표 3〉 원산·함흥권의 주요 기계 공장 현황

공장명		소재	생산 품목	비고
공작기계	용성기계연합기업소	함흥	선반, 터닝반, 대형 공작기계	· 특급 기업소. · 생산 능력 3,000 대
광산건설 기계	단천광산기계	단천	원통 연삭기, 적재기, 4m프레나	· 1957년 조업 시작
농업기계	함흥농기계공장	함흥	트레일러, 농기구	
	원산트랙터공장	원산	트랙터	

자료: 한국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1995. 11.

용성기계연합기업소는 특급 기업소이면서 종합 공장이다. 2차 7개년계획 기간에 들어와 새로 신설된 대형 공작기계 생산 기지이다. 1980년은 종래 생산하던 터닝반, 선반 등 생산 기종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생산 능력이 연간 3,000 대 수준이고 종업원이 6,500 명에 건평이 2만 m²로 이르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확장 공사가 진행되어 1991년에 4만 m² 원심 압축기, 5만 m² 원심 송풍기 등이 설치되었으며, 상당한 능력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단천에는 1957년부터 조업을 시작하여 원통 연삭기, 적재기, 4m프레나 등을 생산하고 있는 단천광산기계공장이 있다. 이외에도 원산·함흥권에는 농업 기계 공장으로서 함흥농기계공장과 원산트랙터공장이 있다. 함흥농기계공장에서는 트레일러와 농기구가 생산되고, 원산트랙터공장에서는 트랙터가 생산되고 있다.

원산·함흥권에는 용성기계연합기업소가 가장 큰 기계 공장이고, 그외에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공장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정밀 기술

을 요구하는 정밀 기계 공장은 하나도 없다.

조선 공업

원산·함흥권에는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 북한 내에서 만재 배수 1,000 톤 이상의 강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 8 개 가운데 무려 4 개의 조선소가 소재하고 있다. 신포, 원산, 육대, 김책조선소가 그 곳이다. 함경남도 육대조선소는 함정 전용 조선소이고, 원산조선소는 일반 화물선 및 어선, 함정 등 각종 선박을 건조하고 있으며, 신포와 김책조선소는 일반 화물선과 어선을 주로 건조하고 있다. 또한 선박 수리소도 김책, 신포, 원산 등에 있으나, 수리용 도크(Dock)를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 공업은 아직 내수용을 위한 중소형 어선 위주의 선박 생산에 머물고 있으며, 조선소 규모에서도 원산조선소의 3만 톤이 최대 건조 가능한 수준이다. 이는 70년대 초 남한의 건조 실적 20만 톤급에 비하면 매우 영세한 수준이다.

〈표 4〉 원산·함흥권의 조선소 현황

공장명	소재	생산 품목	비고
원산조선소	원산시	· 최대 건조 가능 선박: 3만 톤 · 종업원 수: 3,000 명	· 일반 화물선, 어선, 함정 건조 · 수리 조선도 병행
신포조선소	신포시	· 최대 건조 가능 선박: 1만 톤 · 종업원 수: 1,000 명	· 일반 화물선, 어선 건조 · 수리 조선도 병행
육대조선소	신포시	· 최대 건조 가능 선박: 3,000 톤(합정) · 종업원 수: 1,000 명	· 함정 전용 건조
김책조선소	김책시	· 최대 건조 가능 선박: 1만 톤 · 종업원 수: 1,000 명	· 일반 화물선, 어선 건조 · 수리 조선도 병행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산업」, 1995.

화학 공업

북한의 화학 공업은 원산·함흥권 내의 함흥공업지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함흥공업지구에는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홍남비료연합기업소를 비롯하여 본궁화학공장, 2·8비날론연합기업소, 홍남제련소 등 대형 화학 공업 시설이 있고, 이외에도 성천화학공장, 함흥모빌론공장, 덕성가성소다공장 등 많은 중소 규모의 화학 공장들이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공장인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는 파이프, 필름, 가방 등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과 유리, 종이, 물감 제조에 이용되는 탄산 소다, 그리고 요소 비료, 아크릴 섬유 등이 생산되고 있다. 이 공장은 1979년에 나프타 열분해 설비(에틸렌 3만 톤 규모), 저밀도 폴리에틸렌 공장(2만 5,000 톤), 아크릴로니트릴(1만 톤), 산화에틸렌 공장(1만 톤) 등 본격적인 종합 석유화학 공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설비 확장 공사가 진행되어왔다. 1986년에 펄프 제지 공장(4만 톤), 1988년에 탄산 소다 공장, 1986년에 합성수지 공장 등이 착공되어 가동 중이거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외에도 요소 등 화학 비료와 저밀도 폴리프로필렌, 아닐론 등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며, 연간 요소 비료 생산이 40만 톤에 이르고, 아닐론사의 생산은 연간 수천 톤에 이르고 있다.

홍남비료연합기업소도 북한의 대표적인 화학 공업 시설로서 총부지 면적이 140만 m², 종업원 수는 2만 명에 이르는 특급 기업소이다. 이 기업소는 구소련의 지원으로 연산 14만 톤의 질산 비료 공장을 비롯하여 암모니아 합성 공장, 제1 요소 비료 공장 등을 갖고 있다.

2·8비날론연합기업소는 1961년에 건설되어 북한 최초의 유기화학 공장이다. 이 공장은 총부지 면적이 50여만 m²에 이르고 종업원 수는 1만 명을 넘는 특급 기업소이다. 여기서는 비날론 섬유를 비롯하여 PVC, 모빌론 섬유

〈표 5〉 원산·함흥권의 화학 공장 현황

공장명	소재	생산 품목	비고
홍남비료연합기업소	홍남시	유안, 질안, 과인산 석회, 요소 비료 등	· 생산 능력: 143만 톤 · 종업원 수: 9,000 명
홍남제련소	홍남시	인비료, 무기화학품	
2·8비닐론연합기업소	홍남시	비닐론, PVC, 합성수지, 모빌론, 가성 소다 등	· 생산 능력: 15만 톤
본궁화학종합공장	함흥시	카바이트, 가성 소다, 석회질소, PVC	
신흥화학공업단지 (송천경, 용송)	함흥시	폴리비닐 염화물, 부식성 소다 등	
문평제련소	문천시	과인산 석회, 인비료	· 생산 능력: 30만 톤

자료: 한국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1995. 11.

등 합성수지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가성 소다, 농약, 각종 염료 등이 생산되고 있다.

이외에 원산·함흥권내 화학 공장들로는 본궁화학공장, 신흥화학공업단지, 문평제련소 등이 있다. 본궁화학공장의 경우도 종업원이 1,600 명에 이르는 규모가 적지 않은 기업이다. 그만큼 원산·함흥권은 화학 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경공업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경공업 발전에 정책적 비중을 두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경공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원산·함흥권에도 경공업이 발전되고 있다. 북한의 경공업 육성 정책은 동부 지역(함흥·청진 지구)을 원료 기지화하고 서남부 지역(신의주, 강계, 평양, 개성 등)을 제품 생산 기지로 구분하여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원산·함흥권내 경공업은

서남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원산·함흥권에는 화학 섬유, 방직, 의류, 신발, 수산물 가공 공장 등이 있다. 화학 섬유 공장으로는 2·8비닐론연합기업소와 함흥모빌론공장이 있다. 이들 공장에서는 비닐론과 모빌론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커서 특급 기업소들이다. 방직 공장으로는 함흥모방직공장이 있어서 모직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 공장은 종업원이 5,000 명에 이르고 소모 방적이 4만 7,000 추, 직기가 500 대에 이르는 비교적 규모가 큰 방직 공장이다. 의류 공장으로는 광포합영회사와 원산애국편직물유한회사가 있어서 편직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신발 공장으로는 함흥구두공장과 원산신발공장이 있는데 각각 연산 100만 족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동해에 접해 있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식료품 가공업이 발달되어 5 개의 큰 식료품 가공 공장이 있다. 김책수산물가공공장에서는 콩기름, 간장, 된장 등이 생산되고 있고,

〈표 6〉 원산·함흥권의 경공업 공장 현황

공장명		소재	생산 품목	비고
화학 섬유	2·8비닐론연합기업소	함흥시	비닐론(5만 톤), 모빌론(1만 톤)	종업원 수: 1만 명
	함흥모빌론 공장	함흥시	모빌론(1만 톤)	
방직	함흥모방직공장	함흥시	모직물	· 종업원 수: 5,000 명 · 소모 방직 4만 7,000 추 · 직기 500 대
의류	광포합영회사	정평군	편직물	
	원산애국편직물유한회사	원산시	편직물	연 생산 능력 8만 톤
신발	함흥구두공장	함흥시	구두	연산 100만 족
	원산신발공장	원산시	신발	연 생산 능력 100만 족
식료품 가공	김책수산물가공공장	김책시	공기를, 간장, 된장	
	신포어류통조림공장	신포시	어류 통조림	
	신흥화학공장	흥남시	소금 생산	원료로 사탕무우 사용
	원산수산물가공공장	원산시	어류 통조림	
	원산맥주공장	원산시	맥주, 사이다	2,000 병의 맥주 및 포도주 생산

신흥화학공장에서는 소금이 생산되고 있다. 또한 신포어류통조림공장과 원산수산물가공 공장에서는 어류 통조림이 생산되고 있고, 원산맥주공장에서는 맥주, 포도주, 사이다 등이 생산되고 있다.

생산 요소 비용

경제적 투자 환경

원산·함흥권의 경제적 투자 환경을 보면, 생산 요소 비용은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한 나선지대에 비해 높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구비 조건이나 시장 발전성 측면은 평양·남포 권에 비해 다소 열세에 있다.

원산·함흥권내 노동력은 여타 북한 지역과 마찬가지로 높은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질적인 수준에서 매우 우수하고 양적으로 풍부하다. 임금 수준은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에서 규정하는 최저 임금인 약 110 달러 수준이며, 월 평균 임금은 100~150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는 북한내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최저 임금 80 달러나 여타 경쟁 투자국인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실제 베트남의 임금 수준은 약 35 달러이고 중국은 약 90 달러 수준이다.

토지 임대료는 입지 조건과 용도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 도시 중심 구역과 항구 주변 구역의 토지는 I 부류 토지로서 용도(3 가지

로 대별)에 따라 m^2 당 43~64.5 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고, 농촌 지역, 미개발 지역인 산야나 습지 등은 Ⅲ구역으로서 용도에 따라 m^2 당 10.7~43.0 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입지 조건이 Ⅰ부류와 Ⅲ부류의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토지는 Ⅱ부류로 분류되어, 용도에 따라 m^2 당 21.5~53.8 원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토지 사용료로 매년 m^2 당 1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토지 사용료는 장려업종에 대한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수송, 통신, 전력 등 원산·함흥권 내의 사회간접자본 시설도 여타 북한 지역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부족과 설비 노후화로 기업 활동에 사실상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원산·함흥권에는 북한내 8대 무역항 가운데 홍남항, 원산항 등 2개나 있다. 이외에도 동해에 접하고 있어 군소 항구가 여러 개 있다. 홍남항은 홀수 높이 7.6 m 이하 선박만 접안이 가능하며 연간 하역량은 약 450만 톤이나 실제 연간 화물 취급량은 320만 톤에 불과하다. 접안 시설로는 연장 250 m로서 하역 장비는 3 톤급 크레인 3대가 있으며, 일반 화물 부두는 연장 456 m로 10 톤급 크레인 8대가 있다. 살물선 부두는 연장 590 m이며 시멘

트 수출을 위한 10 톤 크레인 7대, 8 톤 크레인 1대, 6 톤 크레인 1대가 있으며, 곡물 하역을 위한 5 톤 크레인 3대가 있다. 지난 1992년 4월 확장 공사로 최대 적안 능력이 3만 톤으로 늘어났고, 화차 전복기, 항만 기중기 등 현대적 기계 설비와 화물 창고, 철도 인입선 등 부대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원산항은 원래 군항이었던 것을 1976년부터 무역항으로 개항한 항만이다. 접안 시설은 외항성 부두 연장이 274 m이고, 소형선 부두 및 유조선 터미널이 있으며, 수심이 6.1~7.9 m이다. 적안 능력은 1만 톤이며 하역 능력은 170만 톤이나 취급량은 40만 톤에 불과하다. 부두에는 철도 진입선이 들어와 있는 등 부대 시설도 비교적 갖추어져 있다.

육상 운송 인프라를 보면 철도로는 대부분 단선으로, 원산에서 나진을 잇는 원라선이 있고, 평양과 원산을 잇는 평원선, 원산과 평강을 잇는 강원선, 함흥과 부천을 잇는 신흥선 등이 있다. 대표적인 도로로는 평양과 원산을 잇는 고속도로와 원산과 금강산을 잇는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내륙 지방과 북부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들이 다수 있다. 물론, 이들 고속도로는 콘크리트 도로이면서 노후화되어 시속 60 km 이상 운행할 수 없는 도로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일반 도로도 도로 폭이 좁고, 비포장 도로이다.

원산·함흥권 내의 전력 설비는 허천강(39만 kW), 장진강(38만 kW), 통천(1만 kW),

금강산(80만 kW) 등의 수력 발전소가 있고, 흥남비료공장(1만 kW), 함흥(15만 kW) 등의 화력발전소가 있다. 대부분의 전력 공급은 풍부한 수력 자원을 바탕으로 수력 발전소가 담당하고 있다. 화력 발전소의 전력 공급은 미미한 가운데 그나마 최근에는 원유와 석탄 조달의 어려움으로, 거의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전압도 매우 불안정하다. 이러한 원산·함흥권내 전력 사정은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정이나 절대 규모에서 크게 부족한 실정이고, 노후화된 발전 설비, 송전 배전 과정에서의 누전 등으로 전력 공급의 부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력 공급의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또한 전력 부족으로 인한 심한 전압 변동으로 인해 자가 발전에 의하지 않고는 근대화된 설비들을 가동할 수 없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표 7> 원산·함흥권의 SOC 현황

항만	흥남항	· 부두 총연장 1,850 m, 최대 수심 13 m, 접안 능력 3만 톤 · 화물 처리 능력: 연간 450만 톤 · 취급 화물: 비료, 마그네사, 크링커 등
	원산항	· 부두 총연장 2,520 m, 최대 수심 6.1~7.9 m, 접안 능력 1만 톤 · 화물 처리 능력: 연간 170만 톤 · 취급 화물: 시멘트, 수산물 등
	기타항	· 신포항 등 소형 항만 다수
철도	원라선	· 원산-흥남-청진-나진
	평원선	· 동서 축 연결(평양-원산) · 총거리: 375 Km
	강원선	· 평라선 일부(원산-평강) · 총거리: 101 Km
	신흥선	· 평라선 일부(함흥-부전) · 총거리: 92 Km
도로	평양-원산 고속도로	· 총연장 197 Km, 노폭 7 m, 곡선 반경 20 m, 구배 4% · 콘크리트 포장, 노후화
	원산-고성 고속도로	· 총연장 193 Km, 노폭 12 m, 곡선 반경 17 m, 구배 4~7%
	기타 도로	· 원산-김화, 평양-원산 등 간선 도로
공항	· 현재 국제 공항은 없음	
	국내선 공항	· 선덕(함흥), 원산(원산) 공항이 있으나, 민군 겸용 비행장으로서 소형 비행장
통신	국제 통신	· 가장 낙후 분야로 지대내 국제 통신은 평양의 위성통신지구국을 통해 연결
	국내 통신	· 대부분 공적인 행정 수요 충족 목적으로 사용
전력	· 수력 발전소: 허천강(39.4만 kW), 장진강(38.1만 kW), 부전강(26.2만 kW)(39.4만 kW), 통천(1.4만 kW), 금강산(80만 kW) · 화력 발전소: 흥남비료공장(1.2만 kW), 함흥(15만 kW)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 투자 실무」, 1995의 내용을 재정리하였음.

통신 부문은 SOC 시설 가운데 가장 낙후된 부문이다. 대부분인 공적인 행정 수요 충족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기업체를 비롯한 개인 부문의 통신 시설은 거의 전무하다. 1991년 말 현재 북한내 전체 국내 전화 회선 수는 82만 회선으로 인구 1,000 명당 3.7 회선에 불과하고, 이러한 전화 보급률은 중국과 베트남의 0.76이나 0.15 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구 소련이나 동구국들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제 전화는 중국, 러시아, 일본을 통해 연결되고 있는데, 1990년 현재 약 50 회선이 운용되고 있을 뿐이다.

시장 잠재력

원산·함흥권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연계성은 낮으나 내륙 지역과의 연계성이 높고 우리나라 동해안 주요 도시와 연결할 수 있는 주요 지역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큰 편이고, SOC 시설이나 산업 기반도 여타 권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원산·함흥권은 동해안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장점과 역사가 깊은 공업 도시들을 갖고 있어서 산업 기반도 비교적 크다. 이것은 남북한 경제 교류는 물론 일본과의 무역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원산·함흥권의 인구를 보면 김책시의 경우 20만~30만 명, 단천의 경우 20만~30만 명, 그리고 흥남과 함흥에 50만~100만 명,

원산에 20만~30만 명으로 이들 3 개 도시에만 100만~19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들 인구 분포는 평양의 200만~500만 명에 비하면 크게 적은 것이나, 여타 권역의 주요 도시 인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앞으로 이 원산·함흥권의 시장 잠재력은 남북 경협이 진전 속도나 대일 교역 관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겠지만, 이들의 움직임과 발 맞추어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요 중심지인 중부 내륙 지방과의 거리가 멀지 않고, 도로 및 철도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구비되어 있어서 이들 지역을 겨냥한 내수 시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적 환경

원산·함흥권은 투자 관련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비해 상당히 열세에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경제와 정경 분리 원칙의 부분적인 도입, 우대 조치 부여 등 3 가지 측면에서 우대 규정을 마련하여 이 지역에서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원산·함흥권은 이러한 우대 조치를 받을 수가 없다. 즉,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주어지는 기업 경영에 자유로운 선택권, 자유로운 지정 장소에서의 외화 유가 증권 거래, 북한 당국의 간섭 및 개입 억제 등과 같은 조치를 받지 못한다. 또한 기업 소득세의 경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10~14%로 낮추고

생산 부문(제조업)에 대해서는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데 반해,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은 결산 이윤의 25%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물론, 북한 당국의 장려 부문에 대해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외국 투자 기업과 마찬가지로 결산 이윤의 10%의 기업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또한 원산·함흥권에서는 여타 북한 지역과 마찬가지로 투자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와 무역 및 금융 제도가 미비되어 있고, 법조문의 애매모호한 표현과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 등과 같은 문제점도 크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자유경제무역지구보다 비자유경제무역지구인 원산·함흥권에서는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원산·함흥권에서 투자한 투자 기업은 외화 반출의 제한, 일반 관세율 적용, 항만 출입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애로 요인은 단기적인 문제이고, 남북 경협이나 북한 당국의 개방 확대가 가시화되면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지난 1997년 2월에 김정우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이 나진·선봉지구외에 남포와 원산을 보세 가공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상당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들 지역은 나진·선봉지역의 성공 여부에 따라 보세 가공 지역에서 자유무역지대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만약 원산이 보세 가공 지역으로 설정되어 운용된다

면, 앞서 살펴본 원산·함흥권의 투자 애로 요인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고,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전환되면 최소한 나진·선봉지구의 수준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환경 종합 평가

원산·함흥권은 물론 중국 시장과의 연계성 문제에서는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 이 지역의 약점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변경 무역지로의 지정학적 요건, 임금과 토지 비용 등에서의 혜택, 각종 세제 및 제도적 투명성, 무비자 및 국경 무역의 허용 등에서 장점을 갖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비해 투자 여건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원산·함흥권의 투자 여건은 여타 지역에 비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우선 원산·함흥권은 여타 권역에 비해 산업 기반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시장 규모 측면에서는 다소 우위에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원산·함흥권은 남북한 경제 교류 관계나 대일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인 동시에, 북한 내륙 지역으로의 연결 지역이어서 향후 상당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북한의 개방 의지가 표면화되 개방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이 지역은 남북을 잇는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정

〈표 8〉 원산·함흥권의 투자 환경 종합 평가

	촉진 요인	애로 요인
지리적 여건	· 북한내 내수 시장 진출 용이 · 일본과의 교역 용이	· 중국·러시아와의 무역 곤란
산업 기반	· 지하 자원, 산림 자원, 수산 자원 개발 · 3개 공업 지대 포함	· 취약한 기계 공업 기반
생산 비용	· 노동력 풍부	· 높은 임금과 토지 임대 비용
SOC 시설	· 2010년까지 대규모 투자 계획 마련	· 투자 계획 실현을 위한 자본 조달난
시장 발전성	· 기존 주요 공업 지대로서 인구가 많음 · 남북 경협, 대일 교역을 위한 부문 발달	· 내수 시장은 국가 계획과의 연계 및 판매 통로의 통제 등으로 접근에 한계
제도적 혜택	· 당국 장려 부문에만 대한 혜택 제공	· 투자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 미비 · 법조문의 애매한 표현과 자의적 해석 가능성

치 경제에 상당한 불안정성이 내포되어 있고, 외화 부족, SOC 부족 등에 시달릴 것이다. 북한내 대부분의 공업 기반 시설이 그렇듯이 이미 생산 시설이나 장비가 노후화되었고 기술 수준도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원산·함흥권 투자도 단기적이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북 진출의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원산·함흥권은 동해 연해 지역이므로 해상 수송이 용이할 뿐 아니라, 여타 지역에 비해 내륙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가 많이 설치되어 육상 수송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원산·함흥권에 대한 투자는 조선소 등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 기존 산업 기반 특히 화학 공업과 금속 공업 등을 활용하는 업종, 내륙 시장을 겨냥한 물류 산업 및 물류 거점 활용 업종 등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간상 단기적으로는 원산·함흥권에 대한 투자는 소규모 자본 투입 업종, 단기에 자본 회수가 가능한 업종, 임가공을 통해 수출 가능한 업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개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남북 경협이 정부 차원에서 활성화되는 중장기적으로는, 다소 자본 집약화하면서 자본 회임 기간이 다소 긴 건설 프로젝트나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업종, 수출과 동시에 내수 시장 겨냥 업종 등에도 투자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